



섬은 ‘한’(恨)과 ‘서러움’이 배어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제 섬은 원초적인 생명력과 풍부한 자원을 지닌 보물창고로서 풍요로운 미래로 안내하는 소중한 징검다리가 되고 있다. 신안군 하의도 일대 다도해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新湖南誌

전라도 1000년 호남을 바로 세우자

〈4〉‘섬의 왕국’ 전라도

강봉룡 목포대 교수·도서문화연구원장

전남에게 섬은 무엇인가?
전남은 전국 섬의 65%를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해역의 37%, 전국 갯벌의 42%, 전국 해안선의 45%를 보유하는 해양자원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전남은 ‘절대적 비교우위’의 세계적 다도해의 해역을 가지고 있는 섬이다. 전북에도 숲한 섬이 있다. 한마디로 전라도는 ‘섬의 왕국’이다.
전남의 섬에는 다양하고 독특한 역사와 문화와 자연이 살아 숨쉬고 있다. 먼저 ‘섬문명’의 흔적으로는 완도의 청해진 문명, 진도의 용장성(고려 왕성) 문명, 흑산도의 국제해양도시의 흔적 등을 들 수 있다. 진도의 다시래기, 비금도의 뽕튀기강강술래와 같이 육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섬민속’도 적지 않다.
진도 윤리산방과 임자도의 만구음관은 각각, 조선 후기 남종문화의 양대 산맥인 ‘추사 김정희-소치 허련계’와 ‘우봉 조희룡계’의 활동 터전이었다. 거문도에는 근대에 영국, 러시아, 일본 등의 열강이 각축한 흔적이 역력히 남아 있어, ‘동아시아의 지브롤터’라 불러 손색이 없다. 홍도와 백도와 같이 비경이 빼어난 섬들도 즐비하다.
1996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제 121조 제1항에서 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섬(island)이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하고 만조일 때도 수면 위에 드러나 있어야 하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제2항에서는 섬이 바다에 대한 제반 권리(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그리고 대륙붕 등)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했다.
여기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 하나만을 소개하지만, 섬을 중심으로 사방 200해리(약 370km)

에 해당하는 바다 공간(약 450만㎢)의 모든 경제적 이권을 섬 보유국이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한 권리이다. 섬에게 바다에 대한 엄청난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유엔해양법협약은 섬의 범주를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단서를 제3항으로 추가하였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바위섬(rock)은 섬(island)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날 바다의 가치는 수직 상승하고 있다. 해양탐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바다에 엄청난 자원이 부존되어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라 일컫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자연히 바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바다 분쟁은 흔히 섬 분쟁으로 표출되곤 한다. 섬에게 인정해준 바다에 대한 엄청난 권리 때문이다. 결국 오늘날 섬은 바다의 근거이자 지킴이인 셈이다. 만약 21세기가 ‘해양의 시대’라고 한다면 곧 ‘섬의 시대’이기도 하다.

‘해양의 시대’는 곧 ‘섬의 시대’

그런데 섬과 바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호의적이지 않다. ‘섬늪’, ‘뱃늪’, ‘갯갯’이라는 비칭(卑稱)은 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비우호적이라는 것을 대변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은 어디로부터 연원한 것일까?
우선 조선시대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조선은 국초부터 대외 해양활동을 금지하는 ‘해금(海禁)’의 정책을 폈고, 이와 함께 섬에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 ‘공도(空島)’의 조치를 집행했다. 자연히 바다와 섬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조선 500년을 관통하면서 바다와 섬 사람들을 천시하는 풍조로 이어졌다. 오늘날 우리가 부지불식간 섬과 바다에 대한 소극적이고 비우호적인 편견을 갖게 된 것은 조선시대에 형성된 왜곡된 인식에서 영향 받은 바가 크다.
섬에 대한 인식은 바다에 대한 생각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바다를 고립과 단절의 공간으로 생각할 경우 섬은 바다에 의해서 단절된 고립 공간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 섬과 바다에 대한 인식이 이러했다. 반면 바다를 세계를 이어

주는 길(바닷길)로 인식하게 되면, 섬은 바닷길을 이어주는, 바다로 열린 개방 공간(교류의 징검다리)으로 간주된다.
오늘날이 ‘해양의 시대’, ‘섬의 시대’라 한다면 섬과 바다를 개방적 공간으로 받아들이는 후자적 인식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섬과 바다를 고립과 단절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후자적 인식에 경도되어 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역사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 섬과 바다를 금기시하고 방기한 조선시대의 역사를 극복하려는 반성적 성찰은 물론이고, 섬과 바다를 적극 활용했던 고려시대 이전의 역사를 새롭게 부각시키려는 계승적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보니 우리는 이제껏 우리 역사를 주로 육지의 관점에서만 보아왔던 것 같다. 섬과 바다를 포괄하는 확대되고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의 정립이야말로 섬에 대한 편향적 인식을 바로잡는 선결 과제인 셈이다.
섬은 역사문화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다. 섬에는 고려시대 이전 개방적인 문명교류의 흔적들이 ‘섬문명’의 형태로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육지에선 사라져버린 민속문화의 원형이 ‘섬민속’의 형태로 온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또한 섬은 다양한 자생 생물종의 서식지다. 이러한 섬 자원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섬 산업을 일으키는 일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청정성과 해풍과 독특한 토양을 가지고 있는 섬과 주위의 바다는 최고 명품의 농수산물들을 생산하는 토대이다.
명품 농수산물의 생산(1차산업)과 가공(2차산업), 그리고 이를 관광(3차산업)으로 연결하는 ‘6차산업’의 최적지로 섬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남의 섬 자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지난해 전남도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은 전남의 섬 자원을 집약하는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진행하여 ‘about 전남의 섬’ 사이트를 일반에 제공하고 있다.(http : //islands.jeonnam.go.kr)
전남은 이러한 섬 자원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갯벌바다에서 생산되는 소금 및 수산물이 우수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고, 해풍을 받고 자란 섬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것 역시 근래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 전남 다도해의 농수산물을 명품 브랜드로 부각시키는 일은 물론이고, 그 다도해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킬 장기속적인 프로젝트를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전남은 전략적으로 막연히 ‘해양’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섬을 포괄하는 ‘다도해’의 개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부산이 해양클러스터의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니,
전남(특히 목포권)은 이와 차별화된 다도해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이는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적합한 정책 대안이다. 섬은 그만큼 전남에게 국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낼 최고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요소이다.
섬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 및 실천을 병행해갈 섬 종합기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마침 34년간 섬 연구의 성과와 노하우를 축적해온 도서문화연구원이 국립목포대학교에 있다.
그간 도서문화연구원은 다양한 섬 연구와 확산 사업은 물론, Scopus에 등재된 국제영문학술지(Journal of Marine and Island Cultures)를 발간하고, 동아시아도서해양문화포럼을 결성하여 주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서해양문화학’의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섬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다도해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끌 국가적 차원의 (가칭)‘한국섬발전진흥원’의 건설로 확대되기를 고대한다.
이를 통해 ‘가고 싶은 섬’, ‘살고 싶은 섬’, ‘살기 좋은 섬’, ‘살아있는 섬’을 구현하여 전남의 다도해가 세계적인 명소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동아시아도서해양문화포럼 회장
·장보고해양경영사연구회 회장
·역사문화학회 회장

전라도 들여다보기

무등산 분청사기

김형주

분청사기는 분장회청사기(粉粧灰靑沙器)의 줄임말로 청자에서 백자로의 이행과정에서 등장한 도자기의 한 형태이다. 무등산의 북쪽 사면에 위치한 금곡마을과 풍암정 일대에는 14~17세기까지 300여년에 이르는 시기의 분청사기와 백자를 굽던 가마터가 다수 분포되어 있다.
분청사기 가마터는 지난 1963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발굴되었는데, 63년은 ‘초보적인’ 조사수준이었고 91년에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이때 7기의 가마터와 3m에 이르는 토사의 퇴적층이 조사돼 15세기 분청사기 가마의 상세한 내부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발굴한 7기의 가마터 가운데 가장 양호한 상태를 보여준 ‘제2호 가마’를 복원해 현재 보호각 안에서 전시 중이다. 2호 가마는 총 길이 20.6m, 너비 1.3m 내외의 규모로 서쪽 벽에 6개소의 측면 출입구가 있으며 13도의 경사면에 진흙과 돌로 축조하였다.
전체 가마는 소성실이 나뉘져 있지 않고 오직 하나로 구성된 ‘단실요’ 구조이다. 번조실 바닥은 진흙으로 다지고 그 위에 모래를 깔았으며, 측면 출입구가 있는 곳의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아궁이는 길이 1.7m, 너비 1.6m로 원형이며 번조실로 올라가는 불덕의 높이는 약 90cm에 진흙과 돌로 축조했다.
출토 유물은 분청사기가 주류를 이루고 그 다음으로 백자와 청자가 차지하며 그 밖에 흑유, 토기, 번조도구 등이 일부 있다. 그릇의 종류는 대접과 접시가 주종을 이루고 함, 발, 호, 병, 매병, 제기, 마상배, 잔, 장군, 벼루, 주자 등 매우 다양하다. 충효동 요지에서 출토된 분청사기, 백자, 갑발 등에서 많은 명문들이 확인된다.
명문의 내용은 굽 안바닥에 ‘金威’, ‘金禾中’, ‘秣金一’, ‘德金’ 등 장인이름과 지명 및 관청명이 백상감된 ‘茂珍內贈(무진내증)’이 보인다. 또한 ‘光州(광주)’, ‘光別(광별)’, ‘光上(광상)’, ‘丁閨二(정궁이)’ 등 지명과 날짜를 표시한 것이 있고, 특히 마상배에 새겨져 있는 ‘어존’이라는 한글 명문은 1446년(세종 28) 훈민정음을 반포한 이후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분청사기는 다양한 문양과 형태로 제작돼 사용되었는데, 제작기법에 따라 삼강분청, 박지분청, 인화분청, 조화분청, 귀얄분청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무등산 분청사기 가마터에서는 인화(印花)분청과 조화(彫花)분청이 주로 만들어졌다.

무등산 충효동 도요지는 전라도 지역 분청사기의 성격과 백자로의 변천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도예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등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